

CES 2026을 통해 본 AX기술 변화 트렌드와 시사점

권보경 수석연구원, 철강연구센터 (bkkwon@posri.re.kr)

목차

1. CES 2026의 의미와 패러다임 변화
2. CTA가 제시한 CES 2026의 3대 트렌드
3. 주요 AX기업들의 CEO 기조 연설과 혁신 방향
4. 주요 산업별 트렌드 변화
5.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CES 2026 핵심 메시지: "AI가 현실세계로 나왔다"
 - 인공지능이 실험실을 벗어나 실물 경제의 운영체제로 자리 잡는 '지능형 전환(Intelligent Transformation)'의 원년
 - 글로벌 기업들이 AI 기술의 실질적 수익화와 물리적 구현에 집중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융합 생태계 구축
- CES 2026의 주관사인 CTA(미국소비자기술협회)는 올해를 관통하는 3대 메가 트렌드로 ▶지능형 전환 ▶수명 연장 ▶내일의 엔지니어링을 제시
 - ① 지능형 전환: AI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와 현실에서 직접 행동하는 피지컬 AI로 진화
 - ② 수명 연장: 기술이 예방 중심 의료와 초개인화 헬스케어를 통해 건강 수명을 실질적으로 연장
 - ③ 내일의 엔지니어링: AI, 로봇틱스, 에너지 기술을 융합해 인류의 거대 난제 해결
- 산업 전반에서 AI는 '생성'을 넘어 '행동'하는 단계로, 로봇은 단순 도구에서 '노동 인프라'로, 모빌리티는 이동 수단에서 '지능형 공간'으로 개념 재정의
 - AI/컴퓨팅: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전환, 온디바이스 AI 확산
 - 로봇틱스: Sim-to-Real 기술로 현장 적응 단축,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용화 본격화
 - 모빌리티: 이동수단에서 AI 플랫폼으로 진화, OTA 기반 구독 수익 모델 확산
 - 스마트 제조/에너지: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(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공장의 공정·생산방식을 변경)과 SMR/수소 기반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의 동시 구축
 - 디지털 헬스: 발병후 치료에서 예방 중심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
- '26년은 AI가 '신기한 기술'을 넘어 '돈을 버는 비즈니스'로 증명되는 해이며,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SW 중심의 수익 모델로 가치 창출 방식 전환 추진
 - 생성형 AI → 에이전틱 AI → 피지컬 AI로의 진화로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필요
 - 단순 자동화 도구에서 범용 노동 플랫폼으로 격상, 인력 전략 재검토 시급
 - 분산 컴퓨팅과 무탄소 에너지 결합으로 운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동시 달성
 - 헬스테크-로봇-자율주행-에너지 등 이종 산업 간 융합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
 - 하드웨어 스펙 경쟁에서 AI 수익화와 경험 중심으로 전환, 서비스 비즈니스 강화 필수

1. CES 2026의 의미와 패러다임 변화

- CES 2026은 AI가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,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물리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및 피지컬 AI 시대의 본격적 개막을 선언함
 - CES 2025가 AI 적용 기술의 초기 확산 단계(Dive in)였다면, CES 2026은 AI가 완결된 생태계를 형성하며 실질적인 산업 수익화 단계(Show up)로 진입하는 원년임
 - 주최 기관인 CTA는 지능형 전환(Intelligent Transformation), 수명 연장(Longevity), 내일의 엔지니어링(Engineering Tomorrow)을 3대 메가 트렌드로 제시하며 AI가 시스템 내부에 깊이 내재화되어 적응형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함
 - 글로벌 주요 CEO들은 AI가 디지털 화면 속을 벗어나 로봇·자율주행·스마트 제조 등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며 현실 세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새로운 산업 표준을 제시함

2. CTA가 제시한 CES 2026의 3대 트렌드

- 지능형 전환: AI가 단순 명령 수행을 넘어 시스템 내부에 내재화되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도구를 제어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하며 기업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함
 -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에서 개별 기기 내부로 컴퓨팅이 분산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확산되며 데이터 지연을 최소화하고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함
 -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이 적용된 보안 칩과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이 지능형 생태계를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로 부상함
- 수명 연장: 기술의 역할이 생활 편의 제공을 넘어 인류의 건강 수명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 정의됨
 - 의료 체계가 질병 발생 후 진단하는 사후 치료에서 벗어나 AI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됨
 - 스마트홈이 가사 노동 축소를 넘어 거주자의 수면·영양·정서를 통합 관리하는 헬스케어 허브로 진화하며 집이 지능형 생활 운영 체제로 재정의됨
- 내일의 엔지니어링: 개별 기기 수준의 혁신을 넘어 에너지·식량·인프라 등 인류의

거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기술들을 시스템 단위로 결합하여 기반 시설을 재설계함

- 자율주행 기술이 승용차를 넘어 농업용 트랙터와 물류 시스템에까지 전면 도입되며 글로벌 인력난을 해소하고 식량 생산성과 공급망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임
- 소형 모듈 원자로(SMR)와 수소 연료 전지 등 차세대 발전 기술과 액체 냉각 표준을 도입하여 폭증하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에너지 관리 체계를 혁신

3. 주요 AX기업들의 CEO 기조 연설과 혁신 방향

□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AI 기술을 단순 도구가 아닌 비즈니스 운영의 핵심 인프라이자 수익 창출의 직접적 동력으로 재정의함

○ NVIDIA 젠슨 황 CEO: "AI가 현실 세계로 나왔다"

- 물리적 세계에서 직접 작동하는 '피지컬 AI'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'에이전틱 AI'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선언
- 코스모스 월드: 실제 세상을 가상으로 완벽히 재현한 모델을 통해 현실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공개
- 알파마요: - 중국은 3만5,000개 이상의 기초 수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6,000개 이상의 산업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여, 지능형 제조 장비 및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대규모 도입을 가속화함을 통해 차량이 독립적 판단 주체로 진화했음을 시연
- 베라 루빈 플랫폼: CPU '베라'와 GPU '루빈'을 결합한 통합 구조로, 기존 대비 추론 성능을 5배 높이고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새로운 하드웨어 표준을 제시

○ AMD 리사 수 회장: "요타 스케일 컴퓨팅 시대가 왔다"

- 데이터 처리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'요타 스케일(10^{24} 급 컴퓨팅 인프라)' 시대를 선언하며, 개방형 표준 기반의 AI 생태계 전략을 구체화
- 인프라 시장 추격: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MI455X GPU와 랙 스케일 플랫폼 '헬리오스'를 공개하며 엔비디아 추격 의지를 다짐

- 온디바이스 AI 선점: 거대 AI 모델을 외부 서버 없이 개인 기기에서 구동할 수 있는 칩셋(라이젠 AI 400)을 통해 로컬 AI 시장 선점 전략을 강조
- **Siemens** 롤랜드 부쉬 CEO: "공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로봇이다"
 - AI와 디지털 트윈을 결합하여 제조 공정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시킴
 - 산업용 메타버스: 가상 공간(디지털 트윈)에서 설비 투자를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, 생산성 향상과 탄소 배출 감소를 동시에 달성
 - Sim-to-Real: 가상에서 로봇을 학습시키고 그 내용을 실제 공장에 즉시 적용하는 기술을 통해 숙련공의 노하우를 디지털로 복제하고 대량 생산하는 비전을 제시
- **Caterpillar** 조 크리드 CEO: "중장비가 지능형 인프라로 진화한다"
 - "숫덩어리에서 지능으로"라는 슬로건 하에, 전통 제조 기업에서 지능형 인프라 혁신 기업으로의 전환 성과를 발표
 - 캣 AI 어시스턴트: 현장 데이터를 분석해 기기 진단과 안전 제어를 수행하며 작업자의 숙련도 격차를 해소
 - 무인 자율주행: 극한의 환경에서도 인간 개입 없이 24시간 가동되는 자율주행 중장비 라인업을 통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입증
- **Lenovo** 양 위안칭 회장: "개인, 기업, 공공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AI"
 - 클라우드(중앙 서버)와 온디바이스(개인 기기)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'하이브리드 AI' 전략을 제시
 - AI 에이전트 '키라':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해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초개인화 비서를 공개
 - 분산 컴퓨팅: 데이터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연산을 처리하여 보안 문제와 지연 시간을 해결하는 인프라의 강점을 부각

[CES 2026 주요 기업별 핵심 메시지 및 전략 요약]

기업명	핵심 메시지	주요 전략 및 기술
NVIDIA	· 피지컬 및 에이전틱 AI 시대 선포 · 가상과 물리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인프라 구축을 주도	코스모스(Cosmos) 월드 모델 기반 합성 데이터 생성, GR00T 로봇 브레인, 차세대 베라 루빈(Vera Rubin) 컴퓨팅 플랫폼 구축 전략 추진
AMD	· 요타 스케일 컴퓨팅 시대 선도 · 개방형 표준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부터 개인 기기까지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	72 개 가속기가 탑재된 헬리오스(Helios) 랙 플랫폼, 라이젠 AI 400 시리즈 출시 및 OpenAI와의 강력한 하드웨어 파트너십 강화
현대 (BD)	· 로봇의 산업 플랫폼화. · 휴머노이드를 단순 시연용이 아닌 실전 투입 가능한 차세대 노동 인프라로 격상	신형 아틀라스(Atlas) 실물 시연 및 양산 로드맵 제시,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(SDF) 비전 발표, 구글 딥마인드와 지능형 로봇 협업 진행
Siemens	· 산업용 AI(Industrial AI) 혁명 주도 · 제조 현장 전체를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 시스템으로 재설계	디지털 트윈 컴포저(Digital Twin Composer) 출시, Industrial AI OS 구축, 마이크로소프트 및 엔비디아와의 산업용 메타버스 협력 확대
캐터필러	· 지능형 산업 인프라 기업으로의 대전환 · 전통적 중장비 제조를 넘어 자율주행과 데이터 지능이 결합된 하이테크 서비스 제공	엔비디아 젯슨 토르 탑재 Cat AI 어시스턴트 공개, 5 종의 차세대 자율주행 중장비 시연 및 오지 건설 현장의 온머신 인텔리전스 구현
Unitree	· 로봇 기술의 대중화 및 양산 가속 · 높은 하드웨어 역동성과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침투력을 확대	범용 휴머노이드 G1 양산, 엔비디아 아이작(Isaac) 플랫폼 활용 Sim-to-Real 학습 가속화 및 로봇틱스의 '챗 GPT 모먼트' 주도

출처: CES2026 참관기 자료 요약

4. 주요 산업 변화별 트렌드 변화

- CES 2026은 AI 및 컴퓨팅, 로봇틱스, 미래 모빌리티, 스마트 제조, 디지털 헬스 등 5대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과 산업 구조 재편을 주도하는 실전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줌
 - AI 및 컴퓨팅: 인공지능이 실험 단계에서 실전 단계로 전환되며 자율형 에이전트 시스템이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고, 추론 중심 컴퓨팅과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핵심 인프라로 부상함
 - 기업들은 기술적 가능성 탐색 단계를 지나 AI 도입을 통한 실질적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정량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수익화 경쟁 단계에 본격 진입함
 - 컴퓨팅 인프라가 중앙 집중식에서 분산형으로 전환되며 네트워크 지연 최소화과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엣지 및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전 산업으로 확산됨
 - 로봇틱스 및 피지컬 AI: 로봇이 단순 자동화 도구를 넘어 제조·물류·서비스 전반을 스스로 최적화하고 인간과 협업하는 차세대 노동 인프라로 격상됨
 - 휴머노이드 로봇이 고난도 비정형 작업을 수행하며 글로벌 인력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하며 주요 기업들의 양산 로드맵이 구체화됨
 - 가상 환경에서 학습된 지능을 실제 로봇에 즉시 배포하는 Sim-to-Real 기술이 발전하며, 신규 로봇의 현장 적응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제조 지능을 글로벌 표준화함
 - 미래 모빌리티: 차량이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 제품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웨어와 AI가 성능을 정의하는 'AI 정의 차량(AIDV)'으로 전환되며 이동 수단이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으로 재정의됨
 -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(SDV) 구조를 통해 차량 출시 이후에도 무선 업데이트로 성능을 진화시키는 구독 모델이 확산되며 완성차 업체의 수익 구조가 하드웨어 판매에서 데이터 서비스로 전환됨
 - 차량 내부가 탑승자의 의도를 이해하며 상호작용하는 경험 중심 모빌리티 공간으로 진화해 멀티모달 AI가 상황에 최적화된 콘텐츠와 안전 기능을 선제적으로 제공함
 - 스마트 제조 및 에너지: 공장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(SDF) 개념이 제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새로운 경쟁력

표준으로 정착함

- 물리적 설비 투자 전에 가상공간에서 공정을 실시간 재현하고 최적화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수율과 비용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
-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원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와 수소 연료 전지를 연계한 무탄소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며 에너지 비용 변동 위험을 해소하고 전력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
- 디지털 헬스 및 수명 연장: 기술이 생활 편의 제공을 넘어 인류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고 실질적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 요소로 정의되며 의료 체계가 예방 중심으로 전환됨
 - 전통적 의료가 병 발생 후 진단하는 사후 치료에서 벗어나, AI와 웨어러블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리 시스템으로 재구조화됨
 - AI와 유전자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유전체학이 결합된 정밀 의학으로 개인별 생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초개인화된 맞춤형 치료법과 건강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는 헬스테크 산업이 성장함

5. 시사점

- ① AI 패러다임의 구조적 전환: AI가 질문에 답하는 생성형 단계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물리 세계에서 과업을 완결하는 에이전틱 및 피지컬 AI로 패러다임이 전환
 - '25년이 기술적 가능성을 탐색하던 확산 단계였다면, '26년은 성숙한 기술이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를 거두며 수익화 경쟁을 본격화하는 실전의 해임
 - AI 경쟁의 주도권이 단일 모델 성능 경쟁에서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생태계 확보와 시스템 통합 역량으로 격상됨
- ② 로봇틱스의 인프라화: 로봇이 특정 공정의 단순 자동화 도구를 넘어 제조·물류·서비스 전반을 스스로 최적화하고 지휘하는 차세대 노동 인프라로 그 지위가 상승
 - 휴머노이드 로봇이 복잡한 비정형 작업을 수행하며 인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양산 로드맵이 구체화됨

- Sim-to-Real 기술이 성숙하며 가상 환경에서 학습된 지능을 실제 로봇에 즉시 배포하여 현장 적응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제조 지능을 글로벌 표준화함
- ③ **지능형 인프라의 재설계: AI 컴퓨팅의 중심이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에서 분산형으로 이동하며 데이터 지연을 최소화하고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 혁신이 동시에 추진**
- 대규모 AI 모델 연산을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개별 기기 내부에서 독립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프라이버시 강화와 함께 전 산업으로 확산됨
 - 소형 모듈 원자로와 직접 액체 냉각 기술을 데이터센터 설계의 필수 표준으로 채택하여 에너지 비용 변동 위험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함
- ④ **산업 경계의 붕괴와 통합: 디지털 헬스·모빌리티·로봇·에너지 등 이종 산업 영역이 AI를 매개로 연결되며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생태계로 통합**
- 헬스테크·로봇·자율주행·에너지 등 이종 산업 간 융합을 가속화하며 타 산업 간 협업과 상호운용성 확보 능력이 기업 생존의 열쇠가 됨
 - 차량이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사용자 의도를 이해하며 상호작용하는 '움직이는 AI 플랫폼'으로 재정의되며 모빌리티·스마트홈·헬스케어 가치 사슬이 유기적으로 통합됨
- ⑤ **가치 창출의 본질적 변화: 하드웨어 중심의 스펙 경쟁이 임계점에 도달하며 사용자 맥락을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운영 지능과 실질적 수익 창출 능력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**
- 주행 거리나 프로세서 속도 같은 단순 성능 지표보다 탑승자 의도를 실시간 파악하여 최적 경험을 설계하는 능력이 제품의 본질적 가치로 정의됨
 - AI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재무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냉혹한 AI 수익화 경쟁이 전 산업 분야에서 본격화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[참고자료]

1. 권민규, 박제민. (2025.01.12). AI Enters Reality: CES 2026 Insight. SK증권 리서치센터.
2. 김록호, 김현수, 유재선. (2026.01.12). CES 2026 탐방기: Physical Twin. 하나증권 리서치센터.
3. 류영호, 하늘. (2026.01.12). Thousand Brains, One Mind: CES 2026.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.
4. 이승훈, 이현욱. (2026.01.12). CES 2026: 로봇, 로봇, 로봇.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.
5. 한용희, 성인제, 권나영. (2025.12.29). CES 2026: 'Show Up', 이제는 AI를 증명할 시간. 그로쓰리서치.
6. 삼정KPMG 경제연구원. (2026.01.09). H.O.R.S.E로 본 미래 산업 트렌드: CES 2026 분석 보고서. 아시아경제.
7. AI트랜스포메이션 뉴스레터. (2026.01.12). 2026년 CES 분석 보고서 정리 - AX 비즈니스 인사이트.
8.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(CTA). (2026.01.09). CES 2026: The Future is Here Official Report. PR Newswire.
9. McKinsey & Company. (2026.01.11). Beyond CES 2026: AI in the physical world. McKinsey Themes.